

#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들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연구

권영은  
(동아대학교)

## 《목 차》

1. 서론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3.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 현황 및 실태
  - 3.1. 이주배경 및 현황
  - 3.2. 실태분석과 시사점
4. 결론

### <Abstract>

**Kwon, young-eun.** 2020. 12. 27. **A study of Actual Conditions on Cambodia Immigrants wives in Korea.**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7, 1-27.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various adaptation problem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suggest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m. First, this study identified life condition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cross individual, familial, and social level aspects. Second, it described challenges and problems they face based on data. Finally, Various efforts to solve related issues and problems were discussed. This study was used research on conditions of multicultural family and previous research findings

and focused marriage immigrant women from Cambodian.  
(Dong-a University)

[Key words] social integration, cultural identity, marriage immigrant women from Cambodian, multiculture, multicultural education

## 1. 서론

한국인 남성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결혼여성이민자<sup>1)</sup>들의 증가에 따라 한국사회는 이들이 한국사회에 어떻게 통합하여 상호 공존해 나가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른 결혼여성이민자들에 관한 학계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로 결혼여성이민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 적응 문화적 갈등과 어려움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03년부터 결혼여성이민자로서 한국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자국여성의 국제결혼 피해에 대해 비교적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에 그 규제가 타 국가보다 강화되어 있다<sup>2)</sup>. 규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캄보디아 정부는 50세를 넘긴 외국인 남성은 캄보디아 여성과 국제결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월 수입도 2,550달러를 넘겨야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는 외국인 결혼 제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들에 대한 심화적인 특성 파악은 한

---

1) 본 연구에서는 황미혜(2017)의 연구에서 정의한 용어로서 결혼을 전제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민자라는 개념으로 용어의 정의를 내렸으며, 결혼여성이민자는 본 연구의 방향에 따른 국적 귀화자와 미귀화자 및 영주권자를 모두 포함한다.

2) 국제이주기구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 보고서(IOM Cambodia Assessment The Marriage Brokerage System from Cambodia to Korea, 2008)에서 결혼중개업을 통한 캄보디아 여성과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 중 일부가 인신매매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으로의 국제결혼특성 또한 캄보디아인 전체 국제결혼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김민지 2019).

한편, 한국사회에서 결혼여성이민자들의 체류 비율이 상위 6개국에 속하는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포함)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순이다(법무부 통계, 2020). 이에 따른 국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존 연구 동향 또한 일본을 제외하면 체류 비율에 따른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sup>3)</sup>. 이러한 체류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해도 캄보디아는 상위 6개국의 결혼여성이민자들에 비해 연구 비율이 비교적 낮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 내 결혼여성이민자 집단 중 한국사회 진입시기가 앞에서 제시한 상위 6개국 중 비교적 최근이고 소수를 차지하는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들의 사회통합 관련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정부와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회통합관련 참고자료로서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자료 분석을 통한 서술적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들의 사회통합도 분석을 통해 이들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사회에 진입하게 될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결혼여성이민자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통합의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

3)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 본 연구자가 국내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키워드를 광의의 용어인 상위 6개국을 다문화, 결혼여성이민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 네 가지 용어로 검색한 결과 다문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다문화 중국, 다문화 베트남 등 상위 6개국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국(902건), 베트남(380건), 일본(859건), 필리핀(257건), 태국(65건), 캄보디아(53건)이다. 특히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들과 관련한 연구는 단일 연구보다는 베트남 등과 같은 국가들과 연계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의 현황과 실태 관련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자녀, 출산 및 이혼, 사회통합 방면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에서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들과 관련한 개별 연구는 국내학술지논문 총 53편 중 5편에 불과하였으며, 그중 한 편은 학술대회 발제 ppt 자료였다. 3편의 연구는 자녀의 언어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이었으며, 1편은 캄보디아 국제결혼규제정책과 관련된 연구이다.

먼저 결혼여성이민자들의 자녀와 관련된 연구를 들 수 있다. 홍용희·오지영(2017)은 인터뷰를 통해 캄보디아 배경 다문화가정 부모가 바라는 캄보디아어 교육에서 목적, 방법, 어려움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캄보디아어 교육 지원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오지영·홍용희(2018)는 캄보디아어처럼 한국에서 사용 수가 소수인 언어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효과적인 캄보디아어 교육의 제공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을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는 커리큘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오지영(2019)은 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언어사용 양상과 어려움을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았다.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로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언어사용에 대한 어려움은 자녀교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낮게 평가되었고,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가 부족했으며, 한국어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과 캄보디아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앞의 세 연구는 결혼여성이민자 자녀들의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문으로 의의가 있으나, 동일 연구자들에 의한 동일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다양성에는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외에 자녀 관련 연구로는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 몇 개국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읽기 및 쓰기 등과 관련한(최승은 2019; 송채수 2018; 박순길 외 2014, 2015; 오재연 외 2014; 유봉애 외 2014)

의 연구들이다.

두 번째, 결혼여성이민자들의 출산 및 이혼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결혼여성이민자들의 출산, 이혼 관련 연구들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결혼여성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출산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출산계획 가능성 및 아들 선호에 따른 추가출산계획의 차이를 분석하였다(장해인 외 2013; 유정균 2013; 2014; 2017; 장인실 2013). 김순남(2014) 이주여성 지원활동을 펼쳐오던 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국내 결혼여성이민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론회 등을 활용하여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위흠 2003; 이금연 2003; 박현정 2004; 석원정 2004; 김남희·김혜빈 2020).

특히 국제결혼여성들이 노출되어질 수 있는 가정폭력, 차별 및 학대,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한국사회에 대한 정확한 문화 이해 부재 등과 관련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중앙정부차원에서 국내 거주 결혼여성이민자가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설동훈 외 2005), 이를 바탕으로 2006년 4월 '결혼여성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발표되었다. 이후 정부의 결혼이민자 사업을 총괄하게 된 여성가족부는 2006년에 결혼이민자가족 뿐 아니라 아동양육실태를 포함하는 농촌거주 결혼여성이민자 정착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이순형 2006). 이후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09; 2012; 2015; 2018).

마지막으로 결혼여성이민자들의 적응 및 사회통합 관련 연구들은 주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의 국제결혼과 관련한 개별 연구는 김민지(2020)의 연구만이 캄보디아 국제결혼이주에 대한 규제 사례를 다루고 있으며, 이 연구 외는 모두 여러 국가를 다룬 연구들이다. 정선주(2020)는 EBS <다문화고부열전>에 출연한 결혼이주여성들의 특징을

살펴본 연구로 결혼여성이민자들의 국적·거주 지역, 나이, 한국어 정도 등을 살펴보았으며, 주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순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출연했다고 분석하였다. 정용균(2020)의 연구에서는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결혼여성 이민자를 대상으로 분쟁 해결 대처방식을 연구하였다. 결혼여성 이민자들의 국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그들은 주로 갈등을 회피하는 방법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센터가 이러한 분쟁 해결에 도움 역할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장정인 외(2019)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한국어사용능력,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G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여성이민자 107명으로 국적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몽골, 일본의 결혼여성이민자들이 연구 분석 대상이 되었다. 결혼여성이민자들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연구들은 앞의 기존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적응과 관련이 있는 연구들로 국한되어 있다. 게다가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사회통합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의 한국의 거주생활 적응에 대한 실태 분석을 위하여 2018년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현황과 적응 실태 사회통합도를 활용하였다.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결혼여성이민자들 및 배우자들의 일반특성인 혼인관계, 양육, 경제활동 등이며, 자녀 관련 일반적인 특성으로 학교생활, 심리, 직업훈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결혼여성이민자들의 국가적 배경 특징과 각 국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현황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결혼여성이민자의 출신국(국적)별 일반적 특성 중 가족형성과 혼인관계, 부부의 관계와 의사 결정에 대한 세 가지 영역에서의 항목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전체 사회통합도의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3.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 현황 및 실태

#### 3.1. 이주배경 및 현황

국내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현상에 따라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동남아시아 중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 결혼여성 이민자들과의 결혼이 높았다. 국제결혼 초기 베트남, 필리핀 여성들과의 결혼이 높았던 이유는 이윤을 추구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이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들과의 결혼을 부추겼다. 또한 2006년부터는 베트남 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불법화 조치의 일환으로 혼인 및 가족법 시행령 제68호의 시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단속의 결과의 산물로 베트남 내 활동한 국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새로운 국가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래서 베트남의 옆 국가인 캄보디아를 인식하게 되어 캄보디아 국제결혼시장을 개척해 나갔다. 이러한 바탕 하에 캄보디아는 국제결혼을 진행한 여성의 80%가 한국 남성이 차지할 만큼 기현상이 나타났었다.<sup>4)</sup>

캄보디아는 자국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반기지 않은 국가 중 하나로 결혼으로 인한 해외 진출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여성들은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 남성과의 결혼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국제결혼의 추세의 다른 원인은 바로 캄보디아의 개혁과 국가개방

---

4) 김정선·김재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미 없지만 유효한 법", 「문제는 다시 국제결혼중개업이다」, 토론회자료집, 이주여성인권포럼, 2010. 2. 17, p. 24.

이후 도시 농촌의 경제적인 격차가 점점 심화되어 캄보디아 농촌지역 남성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도 한 몫을 하였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캄보디아 여성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정선 외 2010). 이에 따라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인 남성에게 있어서 캄보디아 뉴페이스의 결혼대상국이 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캄보디아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소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캄보디아를 찾는 국제 관광객 등의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여성 성매매, 인신매매 등이 해외에 점차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국제차원의 비영리단체들은 캄보디아 정부를 비판하며, 자국 여성 및 아동의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였다. 게다가 2008년 2월 한국인과의 결혼 중개방식이 인신매매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다. 언론보도는 점차 확산되어 미국언론의 비판여론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방지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서 국제결혼 관련 업무의 잠정적 중단을 2008년 3월 27일에 발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결혼과 관련한 중단조치는 2008년 11월 캄보디아 자국민, 특히 캄보디아 여성들의 결혼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할 때까지 조치는 계속되었다. 이에 따른 약 7개월 정도의 기간 중에는 캄보디아 여성의 상당수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기기간이 길어져 이에 대한 피해와 문제점도 함께 발생하였다. 게다가 2009년 9월 한국의 결혼중개업자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맞선 자리에 한국남성 1명이 무려 캄보디아 여성 25명을 상대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결국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되어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에 후폭풍으로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등록을 잠정 중단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4월 21일에는 국제결혼관련 절차를 개정하여



재개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캄보디아 가족 및 혼인법에 관한 시행령이 1989년 7월 17일 캄보디아 국회에서 비준되었으며, 당해 7월 20일에 서명을 받았다. 이와 같은 바탕 하에 법은 헌법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였으며, 이 법은 총 122개 조문으로 구성된 캄보디아의 가정에 관한 일반법해당된다. 외국에서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에 관하여는 제4장 제79조 및 제81조에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준거법 및 관할 등에 관련한 규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캄보디아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의 국제결혼은 거주국가의 캄보디아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등기담당자에게 출석해야 한다. 또한 동법에 따라 캄보디아인과 외국인과의 정식결혼을 할 시에는 캄보디아 법이 미치는 유효한 결혼이 된다(제79조). 아울러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캄보디아 법에 따른다(제80조). 외국인과 캄보디아 국민 사이는 캄보디아에서 혼인무효를 하고자 할 시에는 캄보디아의 법률에 의한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서 결혼의 무효를 제기한다면 캄보디아 법원은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제81조).<sup>5)</sup>

---

5) 캄보디아는 국제결혼이 문제가 되자 2008년 3월 한국과의 국제결혼을 잠정 중단하였다가 재개한 바 있다.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관련법은 캄보디아 혼인 및 가족법(1989)이 있고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 간의 결혼방식과 절차에 관한 시행령(2008.11)이 있는데, 이 시행령에서는 중개업체나 중개인 또는 결혼중개전문회사를 통한 혼인 절대적으로 금지된다(제3조).

**<표 1 결혼여성이민자 상위 6개국 현황>**

(2020.09.30. 현재, 단위 : 명)

국적 구분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기타	
	168,026	83,051	44,101	14,462	11,978	5,723	4,685	26,773
	100%	35.9%	26.2%	8.6%	7.1%	3.4%	2.0%	16%
남자	21,960	3,066	1,234	492	107	444	8,102	
여자	61,086	41,035	13,228	11,486	5,616	4,241	14,507	

<출처 :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구성>

결혼여성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제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국민 됨이 전제가 된다. 이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잠시 머물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일시적 이주자들이 아니다’ 라는 점이다. 그들의 국민 됨의 전제는 자녀들까지 이어 주기 때문에 어머니 나라 이중언어 구사 가능성 등도 고려되어 향후 글로벌 인재로서 자질을 갖추 수도 있다는 기능도 있다는 것이다.

**<표 2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 혼인 및 이혼 현황>**

(단위 : 건)

혼인			이혼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1,804	659	851	99	178	109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006년 4월 ‘결혼여성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이 발

표된 후 지속적인 지원 정책과 관련 법률의 재개정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까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래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 50세 넘는 외국인,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 금지 -**

“50세를 넘긴 외국인 남성은 앞으로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하지 못한다. 월수입도 2550달러를 넘겨야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캄보디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 같은 외국인 결혼 제한 규정을 만들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외국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캄보디아 내부에서만 적용된다고 외무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인권단체 리카도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캄보디아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때는 아무 제약도 없는데, 캄보디아 여성만 50세 이상의 외국인 남성과 결혼에 제약을 두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앞서 2008년 3월 국제이주기구(IOM)는 ‘브로커를 통한 한국 남성과 캄보디아 여성의 중개결혼 사례 중 일부가 인신매매 성격이 있다’ 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자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결혼을 8개월 동안 금지한 적이 있다.” (출처: 조선닷컴(chosun.com), 2011. 3. 17)

**- 캄보디아 정부, 한국인과 결혼 "당분간 금지" -**

“캄보디아 정부가 캄보디아인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당분간 금지했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국내 시민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이달 초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캄보디아인과 한국인 간 결혼을 잠정 중단한다고 구두로 통보하고, 지난 5일 공식 문건을 보내 이런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캄보디아 여성 25명을 모아 한국인 1명에게 맞선을 보인 게 당국에 적발돼 현지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하자 캄보디아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고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난

2008년 3월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중개를 통한 국제결혼을 금지했었지만 같은 해 11월 한국인과 결혼을 다시 '자유연애' 형태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캄보디아인 여성은 지난해에만 1,372명에 달했습니다.” (출처: 2010년 3월 19일 YTN)

#### -불법체류자 될까봐 남편의 횡포 참아-

“잘생긴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예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고 한국 왔는데... 남편이 때려서 무섭고, 고향에는 부끄러워서 못 돌아가요..., 2008년 결혼중개업체 소개로 한국인 남편 김모(49)씨를 만나 결혼한 캄보디아 여성 보과(가명, 24)씨는 고향 애기가 나오자 굶은 눈물을 푹 떨어뜨렸다. TV를 통해 '한류'를 접하고 '코리아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 땅을 밟았지만, 보과 씨의 결혼 생활은 악몽과도 같았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시누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허드렛일에 시달려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까닭 없이 몽둥이로 때렸다. 남편을 피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쉼터에 잠시 머물고 있는 그는 남편이 왜 나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보과 씨 사정을 잘 아는 쉼터 관계자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보과 씨 남편이 전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건 마치 돈을 주고 여자를 사와 낮에는 일을 시키고 밤에는 성적 노리개로 이용하는 '신종인신매매'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보과 씨에게 3개월 체류 연장만을 허가하고 있다. 보과 씨는 언제 불법체류자 신세가 될지 몰라 마음을 졸이고 있다.” (출처: 2011년 3월 23일 연합뉴스)

#### -95억 보험금 만삭아내 살해 혐의 남편, 파기환송심서 금고 2년-

“보험금 95억 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50) 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1심에선 무죄와 2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

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24세로 임신 7개월이었던 이 씨 아내 앞으로는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계약이 돼 있었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 원이 넘는다.” (출처: 2014년 3월 23일 연합뉴스)

위의 사례들은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보도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국인과의 역차별, 시혜의 대상 등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구성원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예방으로는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뿐만 아니라 전체 결혼여성이민자들의 국가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대응책도 요구됨을 반증하고 있다. 이는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이혼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입국 후 다시 재출국 등과 관련한 또 다른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그간의 보편적인 실태조사는 서류에 의지하는 단순한 조사분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결혼여성이민자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의 실태조사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실태 분석은 국제지표를 벤치마킹하는 것과 관련, 유럽에서 개발한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sup>6)</sup>의 경우는 문서 내용을 기반으로 측정하는 탓에 과제의 실제 실행 여부와 효율성을 판단하

---

6)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 British Council과 유럽 싱크탱크인 Foreign Policy Centre 등이 주축이 되어 2005년에 공표하였다. European Civic Citizenship and Inclusion Index(MIPEX I)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주민들이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거주국 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안정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MIPEX거주국가가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수라고 할 수 있다(정기선 외, 2014).

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 3.2. 실태 분석과 시사점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모집단 정의에 따라 이 조사에 응답한 배우자 수는 총 17,073명이며, 가중치 적용시 추정치는 총 280,020명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해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결혼이민자·기타귀화자의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국내 거주기간, 출신국적 등 주요 변수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각 이슈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변수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82.7%, 남성 17.3%로 여성이 월등히 많고, 이번 조사에서부터 층화변수로 투입된 결혼이민자와 기타귀화자 간의 비율은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가 85.2%, 기타 귀화자가 14.8%이다. 거주 지역별로는 동부 거주자가 77.0%, 읍면부 거주자는 23.0%이다.

<표 3 결혼여성이민자 상위 6개국>

(단위: %)

	국가명	비율
출신국적	중국(한국계)	41.4
	일본	4.2
	베트남	23.4
	필리핀	6.2
	태국	1.3
	캄보디아	2.6
	기타	11.9

<출처: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구성>

아래의 <표 4>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혼인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도 여전히 결혼 중개업체나 중개업자를 통한 만남이 여전히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혼인 통로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읍면부 거주자, 출신 국가별로는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표 4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혼인 상태>

(단위: %)

출신국적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로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로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종교 기관을 통해서	스 스 로	기 타	합 계
중국(한국계)	47.3	75.8	13.6	1.5	61.2	0.5	100
일본	3.5	21.7	0.5	36.6	36.8	0.1	
베트남	18.2	23.7	50.9	0.3	6.9	0.1	
필리핀	15.5	31.2	23.7	12.3	17.1	0.1	
태국	11.6	30.0	5.7	7.3	44.9	0.5	
캄보디아	22.8	19.2	52.3	0.9	4.7	1.4	

<출처: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구성>

다음의 <표 5>에서는 출신국적에서 일본 출신에서 양쪽 모두 초혼인 비율이 높은 반면, 중국과 한국계 중국 출신에서 양쪽 모두 재혼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캄보디아 출신자들은 본인은 초혼으로 재혼인 배우자와 만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5 유배우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 만남 경로>

(단위: %)

	둘다 초혼	본인 초혼 배우자 재혼	본인 재혼 배우자 초혼	둘다 재혼	합계
중국(한국계)	57.6	6	10.1	26.4	100.0
일본	90.5	3.3	1.6	4.6	
베트남	73.3	16.6	4.1	6.0	
필리핀	79.2	15.2	2.8	2.7	
태국	63.3	13.8	10.5	12.4	
캄보디아	77.6	18.4	2.7	1.3	

<출처: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구성>

아래의 <표 6>에서는 이혼 및 별거 이유에 관한 조사내용이다. 출신국가별로는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이혼·별거 사유라는 응답이 캄보디아(25.3%)가 높은 편이었고, 학대·폭력 때문이라는 응답은 태국(26.8%), 베트남(19.5%), 필리핀(17.4%), 일본(16.0%) 출신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6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 이혼 및 별거 이유>

(단위: %)

출신 국가	중국 (한국계)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 디아
외도등의 애정문제	7.9	4	7.3	8.2	24.6	1.5
성격차이	4	36	35.5	42.6	11.2	35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4.4	0	11.1	3.8	0	25.3
경제문제	13.1	17.6	10.2	17.6	12.8	12.1
자녀문제	1.3	0	2.7	3.8	0	6.1
학대및폭력	6.3	16	19.5	17.4	26.8	14.9
음주도박	7.4	0	10.8	2.8	0	3.8
심각한 정신장애	1.1	0	0	0	2.2	1.2
배우자의 가출	2.4	26.4	1.9	0.8	22.3	0
기타	0.5	0	1	2.9	0	0
합계	100					

<출처: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구성>

위의 표는 출신국가나 거주 지역에 따라 부부 및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이나 폭력, 학대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래의 <표 7>에서 결혼여성이민자들의 배우자 사망 후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이다. 출신국적 별로는 중국(한국계) 출신에서는 사별 후 15년 이상이 지난 사람이 많은 반면, 필리핀,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들의 경우

에는 최근 3년 이내에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표 7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 사망 후 현재까지의 기간>

(단위: %)

출산국가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 년 미만	15년 이상	합계
중국(한국계)	18.9	26	25.6	17.8	11.9	100
일본	41.5	23.4	19.3	6.6	10.1	
대만·홍콩	0.0	23.7	0.0	12.4	63.9	
베트남	44.1	27.6	23.9	3.5	0.8	
필리핀	44.7	14.7	28.5	12.1	0.0	
태국	24.5	13.3	24.5	37.8	0.0	
캄보디아	7.6	25.8	66.7	9.9	0.0	

<출처: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구성>

다음의 <표 8>에서는 부부간 문화적 차이 경험에 대한 조사 내용이다. 배우자가 있는 결혼이민자·귀화자에게 지난 1년간 부부간 문화적 차이를 느낀 적이 있는지를 묻고, 주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많이 느끼는지를 조사하였다. 문화적 차이를 전혀 느낀 적이 없다는 응답은 44.1%이며, 55.9%는 어떤 식으로든 문화적 차이를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결혼 기간, 국내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정도가 더 높아진다. 이는 이민자에게는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에 부부관계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더 많이 느끼고 있다. 반면 캄보디아는 자주 느꼈다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들의 문화적 차이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부부간 문화적 차이>

(단위: %)

출산국가	전혀 느낀적 없다	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	합계	평균
중국(한국계)	59	33.2	11.8	1.8	100	1.51
일본	29.5	55.9	10.2	4.4		1.32
대만·홍콩	55.6	37.3	4.9	2.1		1.90
베트남	28.7	56.0	12.8	2.5		1.54
필리핀	28.0	56.0	12.1	3.9		1.89
태국	28.9	56.1	10.4	4.6		1.92
캄보디아	24.1	56.8	15.9	3.2		1.91

<출처: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구성>

다음의 <표 9>는 결혼여성이민자들의 문화적 차이에 관한 유형에서 복수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국내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식습관(체류기간 5년 미만 62.1%, 15년 이상 39.7%), 의사소통(5년 미만 44.1%, 15년 이상 38.1%)에서의 문화적 차이 경험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가사 분담 방식(5년 미만 12.2%, 15년 이상 15.9%), 저축, 소비 등 경제생활(5년 미만 17.9%, 15년 이상 24.3%)에 대한 부부간 문화적 차이 경험은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늘어난다.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는 자녀양육방식과 부모부양방식에서 높은 문화적 차이를 보였다.

<표 9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문화적 차이 유형(복수응답)>

(단위: %)

출산국가	식 습 관	의복 등 옷 얹는 습관	차녀 양육 방식	가사 분담 방식	부모 부양 방식	가족 행사 등 가족 의례	종교 생활 에 대한 이해	자취, 소비 등경제 생활차 이	의사 소통 방식	기타
중국(한국계)	7.9	55.9	4.4	13.1	1.3	6.3	7.4	1.1	26.	0.5
일본	4.0	36.0	0.0	17.6	0.0	16.0	0.0	0.0	4	0.0
대만·홍콩	3.3	64.3	1.5	25.5	0.0	2.3	1.8	0.0	1.3	0.0
베트남	7.3	35.5	11.1	10.2	2.7	19.5	10.8	0.0	1.9	1.0
필리핀	8.2	42.6	3.8	17.6	3.8	17.4	2.8	0.0	0.8	2.9
태국	24.6	11.2	0.0	12.8	0.0	26.8	0.0	2.2	22.	0.0
캄보디아	1.5	35.0	25.3	12.1	6.1	14.9	3.8	1.2	3	0.0
									0.0	

<출처: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구성>

다음의 <표 10>은 결혼여성이민자들의 지난 1년간 배우자와의 갈등 이유에 관한 복수응답에 관한 내용이다. 국내 거주기간별로는 5년 미만 체류자들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36.1%), 문화적 차이(24.8%)로 부부간 갈등을 겪는 경향이 나타난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부 갈등은 베트남(33.8%), 태국(33.8%), 필리핀(33.4%), 캄보디아(31.6%) 등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귀화자에서 높은 편이다.

<표 10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지난 1년간 배우자와의 갈등 이유>

(복수응답) (단위: %, 명)

출신 국가	성격 차이	문화 종교 가치 관 차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	자녀의 교육 또는 행동 문제	생활 비등 경제 문제	음주 문제	배우자가 자국의 갈등	본인 가족과의 갈등(가족 초청, 물질적 지원등)	외도 문제	폭언, 욕설, 신체적인 폭력 문제	삼한 의심, 외출 제한, 여권 숨김 등
중국(한국계)	57.3	13.1	10.7	22.7	24.5	10.8	7.7	2.7	0.5	1.7	0.5
일본	58.1	28.7	15.2	18.4	10.4	18.1	3.6	0.5	4.6	4.6	0.8
베트남	51.6	20.2	33.8	20.4	9.2	8.9	3.0	0.4	1.7	1.7	0.8
필리핀	48.0	22.0	33.4	23.5	12.3	9.2	2.5	0.4	1.7	1.7	0.5
태국	50.6	22.3	33.8	17.6	10.4	7.9	1.9	1.0	2.8	2.8	0.3
캄보디아	46.1	21.4	31.6	29.2	23.8	9.3	9.2	2.7	0.6	2.3	0.7

<출처: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구성>

<표 11 성역할 인식: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 책임>

(단위: %, 명)

출신국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평균
중국(한국계)	15.2	38.4	40.7	5.9	100	4.7
일본	15.6	43.2	35.7	5.5		2.31
베트남	17.8	47.2	31.8	3.2		2.55
필리핀	19.9	46.2	30.6	3.3		2.20
태국	18.2	46.0	33.4	2.4		2.17
캄보디아	21.5	46.7	29.1	2.7		2.20

<출처: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구성>

위의 <표 11>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위 6개국은 대부분 생계부양이 남성 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아래의 <표 11>은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라는 인식 결과이다. 출신 국적별로는 중국(3.16점), 필리핀(3.13점)이 여성의 경제적 자립 중요성에 동의하는 태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표 12 성역할 인식: 여성의 경제적 자립 중요 >

(단위: %, 명)

출신국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평균
중국(한국계)	0.8	10.2	64.2	24.9	100	3.13
일본	1.5	12.5	66.6	19.4		3.04
베트남	0.7	9.6	69.7	19.9		3.09
필리핀	0.2	9.9	66.4	23.5		3.13
태국	0.5	13.7	68.2	17.5		3.03
캄보디아	0.6	11.8	67.0	20.5		3.07

<출처: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구성>

이와 같이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들의 일반적 특성, 가족형성과 혼인관계, 부부의 관계와 의사 결정에 대한 항목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들의 분석에서 보듯이 캄보디아 정부의 강경대처와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들의 한국사회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는 다문화가족에 집중하여 배우자, 특히 그 자녀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향후 조사에서는 결혼여성이민자들의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접근의 다양성도 요구된다. 이에 따른 국가별 국제결혼이주 특성에 따라 설문조항에 4점 척도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조사도 더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결혼여성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측정하는 평가지표를 MIPEX 등 국제적 수준에 맞

추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 포괄적으로 한국사회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개선된다면 그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소 부정적 이미지 완화와 함께 편중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을 실효성 있게 개편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나아가 부처별로 혼재되어 있는 전체 이민자 정책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사회통합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4. 결론

결혼여성이민자들의 국가별 분포도에서 상위 6개국에 해당하고 있는 국가 중 캄보디아는 2003년부터 결혼여성이민자로서 한국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자국여성의 국제결혼 피해에 대해 비교적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에 그 규제가 타 국가보다 강화되어 있다. 캄보디아는 상위 6개국의 결혼여성이민자들에 비해 연구 비율이 비교적 낮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 내 결혼여성이민자 집단 중 한국사회 진입시기가 앞에서 제시한 상위 6개국 중 비교적 최근이고 소수를 차지하는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들의 사회통합 관련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들에 관한 연구 및 그들의 현황과 실태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조사를 참조하였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들이 독립적인 자아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이들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는 내용만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그래서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들의 일반적 특성, 가족형성과 혼인관계, 부부의 관계와 의사 결정에 대한 항목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는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일반적인 특성의 세 가지 영역 중에서 국가별 비율만 제시하여 연령, 지역, 경제수준 등을 감안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

계를 보완하는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들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캄보디아 정부의 강경대처와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들의 한국사회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게다가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들은 한국으로의 국제결혼 특성에서 캄보디아인 전체 국제결혼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캄보디아 국가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국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다문화정책업무를 통일하여 일관된 정책을 할 수 있는 이민청의 설립 또한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 결혼여성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수혜자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의 다문화교육 등 사회적 여건 조성을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캄보디아 결혼여성이민자들에 대한 후속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캄보디아 관련 지원기관 등에 참고자료로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남희·김혜빈(2020).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사례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제6집,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1~24쪽.
- 김미진 외(2018). 국내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1권 1호. 쪽-27쪽.
- 김민지(2018). 국제결혼에 대한 국가 통제의 원인 고찰: 캄보디아 국제결혼이주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탈경계인문학>, 12권 1호.65쪽-100쪽.
- 김숙경(2018). MIPEX를 통해 본 프랑스 이주민통합정책 연구, <사



- 회과학연구>, 31권 .4호 .18쪽1-205쪽.
- 김중관(2018). MIPEX지수에 의한 다문화사회통합 정책의 비교분석, <國 中東 學會 論叢>, 34권 1호. 175쪽-197쪽.
- 김재일(2018).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제도 평가: 이주자통합정책지수를 통한 비교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3권 2호. 175쪽-192쪽.
- 박순길(2018). 취학전 다문화가정, 농촌, 도시 아동의 문식성 및 인지 언어적 발달 비교 <言語治療研究>, 23권 4호. 33쪽-46쪽.
- 박순길 외(2018).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읽기, 쓰기와 인지처리능력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5권 2호. 57쪽-165쪽.
- 송채수(2018). 이중언어사회화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남아출신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48권. 245쪽-280쪽.
- 여성가족부(218).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오지영(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언어 사용 양상 및 어려움, <육아지원연구>, 14권 .4호. 53쪽-83쪽.
- 오지영 외(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 언어교육 지원을 위한 실행연구, <유아교육연구>, 38권 6호. 191쪽-228쪽.
- 오재연 외(2018). 출신국적별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삶의 질,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유아의 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3권 1호. 293쪽-319쪽.
- 유봉애(2018).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권 4호. 511쪽-538쪽.
- 유정균(2018). 혼인이주여성의 출산아수별 출산계획: 계층이동 경험과 외국인 비중의 영향을 중심으로, <保健社會研究>, 37권 1호. 106쪽-139쪽.

- 유정균(2018). 혼인이주여성의 아들선호가 추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7권. 79쪽-105쪽.
- 유정균(2018). 혼인이주여성의 상하이동 인식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6권 2호. 45쪽-67쪽.
- 장인실(201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자아정체감 연구, <교육종합연구>, 11권 4호. 315쪽-339쪽.
- 장정인(2018). 다문화가정 여성의 한국어 사용능력과 사회적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교육복지>, 6권 1호. 137쪽-151쪽.
- 장해인(2018). 다문화 가정 신생아의 출생률과 주산기 위험 인자 및 예후 변화: 단일기관에서의 10년간 경험, <Neonatal medicine> 20권 1호. 146쪽-154쪽.
- 정선주(2018). EBS <다문화고부열전>에 출연한 결혼이주여성의 특징: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9권 2호. 157쪽-196쪽.
- 정용균(2018).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의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베트남·캄보디아 출신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8권 2호. 127쪽-138쪽.
- 진미정 외 (2018). 중국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 도 영향요인: 2009년,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비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권 2호. 133쪽-155쪽.
- 홍용희(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부모의 캄보디아어 교육에 대한 사례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0권 4호. 85쪽-126쪽.
- 황미혜(2018). 다문화시대의 결혼여성 이민자 이중언어사용에 관한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1권 50호. 79쪽-96쪽.
- CIA.(2009). The World fact Book Cambodia.
- IOM.(2008). “IOM Cambodia Assessment: The Marriage Brokerage System from Cambodia to Korea.”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17/0200000000AKR2>

0110317131700026.HTML, (2020.12.03. 검색).  
[http://www.ytn.co.kr/\\_ln/0101\\_201003191856022031](http://www.ytn.co.kr/_ln/0101_201003191856022031), (2020.12.03.  
검색).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IY7DAKW>, (2020.12.03. 검색).

### 필자 소개

성 명 : 권영은  
소 속 :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박사과정/부산은행 범일동 지점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전동 경동파크타워 603호 [우편번호]47253  
전화번호 : 010-9426-9168  
전자우편 : dkxpsp43@hanmail.net

투고일: 2020. 12. 27 / 심사일: 2021. 1. 4 / 심사완료일: 2021. 2. 18